

휴전 60주년 기념행사를 한인회가 공동 주최

관련기사 2페이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마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어머니 합창단



참전용사회의 재리 차프만 회장에게 태극기를 증정하고 있는 조규자 한인회장. Photo by Circe O.Woessner

2013년 7/8월호 내용

- 표지 | 휴전60주년 기념행사 : 1
- 미주지역소식 | 글렌데일 시에 평화의 소녀상 제막 : 2
- 한인회소식 | 참전 용사와 함께 한 휴전60주년 기념 행사 : 3
- 교계소식 | 천기원 목사님 초청 집회를 마치고 | 김기천 : 6
- 지역사회 | 신타페 아트페어에서 한지전시를 마치고 | 박영숙 : 9
- 지역사회 | 박인배 목사님을 회고하며 | 이경화 : 10
- 수필 | 하나님을 찬양함, 그 특권의 한복판에 내가! | 양수미 : 12
- 수필 | 2주간의 휴가 | 이동미 : 14
- 기도문 | 새벽예배 기도문 | 전용배 : 15
- 설교요약 | 힘써 하나님을 알자 | 이준우 : 17
- 광고 |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안내 : 16
- 광고 | 뉴멕시코 한인 업소 (1) : 18
- 광고 | 뉴멕시코 한인 업소 (2) : 19

글렌데일 시에 ‘평화의 소녀상’ 제막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성노예가 된 피해여성을 상징화한 ‘평화의 소녀상’이 미국에 최초로 세워졌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부에 위치한 글렌데일 시는 중앙도서관 앞



유튜브에 올려진 동영상. (youtube.com/chosunmedia)

시 공원부지에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희생을 기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는 제막식을 ‘한국 위안부의 날’로 지정된 7월 30일 가졌다. 지난 3월에 글렌데일 시에서 가졌던 공청회에서 일본계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대1의 표결로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기로 가결 한 바 있다.

제막식에는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88)와 글렌데일 시 정부를 대표한 시의원, 그리고 지역사회와 여러 인사, 한인단체 회원 등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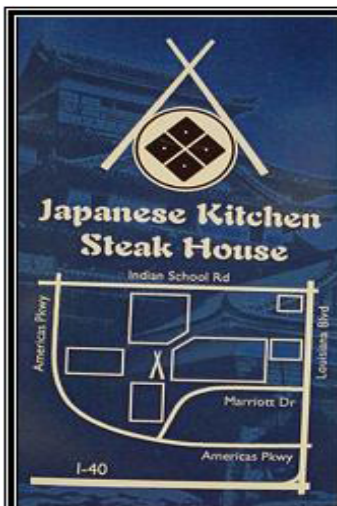
이날 제막식에는 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일본계 주민들도 참석 하였고 일본계 미국인을

대표한 마이클 고다마는 “위안부 규탄 결의안 채택과 위안부의 날 지정, 평화의 소녀상 건립등의 시정부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고 시민단체 NRCC 캐시 마사오카 대표는 “일본 정부와 정치인은 과거 역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일본 정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여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져 있는 동상과 똑 같이 새로 만든 것으로 조각가 김운성, 김서경 부부도 제막식에 참석했다. (글:편집부) ■



사진 설명: 프랭크 키펀테로 전 글렌데일 시장과 소녀상. 키펀테로 전 시장은 역사학자 출신으로 소녀의 상 건립에 주 역할을 하였다. 서울에 있는 소녀상을 방문했을때 그는 “사람은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위안부 (정신대) 문제를 바로 알리는 일에 대한 적극성을 보여주신 분이 다. <자료제공: go발뉴스 나혜운 기자, 박상균기자>



Japanese Kitchen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 정식 (5코스:30불, 6코스:40불, 8코스:50불)

모듬정식(벤토), 해물우동, 튀김 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콩치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 야끼전문, 고기종류와 해물 외 다수

Phone (505) 884-8937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Japanese Kitchen
Steak House

6521 Americas Parkway NE
Albuquerque NM, 87110

Phone: 884.8937

Fax: 884.8938

www.japanesekitchen.com

한국6.25전쟁 휴전 60주년

참전용사와 함께한 기념행사

지난 7월 27일에 있는 한국전쟁 휴전협정 60주년 기념행사는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 주신 뉴멕시코 출신 214분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의 노고를 기림과 동시에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게 되는 뜻 깊은 자리였다.

한국인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뉴멕시코주 한인회(회장:조규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알버커키 한국전 용사회(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of Albuquerque)(회장:Jerry Chapman)와 공동으로 Veterans Memorial Park (1100 Louisiana Blvd. SE, Albuquerque, NM 87018)에서 세 시간여 동안 진행되었고 200여명이 넘는 관중들과 공연자들이 함께 했다.

기념식을 가진 후 특별히 준비한 공연 시간에는 숨겨진 재능을 가지신 여러 한인들이 음악, 무용, 고전, 현대 악기 연주, 태권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준비한 것을 통해 감사와 나라사랑을 보여 드렸고 행사를 마친 이후에는 불고기, 잡채, 김치 등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국음식으로 참석한 모든 분들께 즐거움을 드렸다. 즐거움과 더불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시며 흔드시는 연로하신 어머님들의 태극기의 움직임은 우리 한인 모두를 울격하게 만든 시간이었다. 전쟁의 포화 소리는 멀리 사그라졌지만 우리 후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결코 사그라질 수가 없다는 것, 여전히 위협하는 소리는 있고 이 휴전의 상태가 더 길어지기엔 너무나 배고픈 동포들이 있기에 우리는 진정 무감각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통일에의 준비와 받아들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해 본다.

사진으로 보는 휴전 60주년 기념행사

기념행사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1. 참전 용사회 차프만 회장의 환영 인사
2. Post Colors
3. Pledge of Allegiance
4. Star Spangled Banner와 애국가
5. 군목(Military Chaplain)의 기도
6. 한국전쟁 역사적 회고(Jerry Chapman)
7. 한인회장 Kathy Kelly(조규자) 소개
8. 태극기 선물 (표지 사진 참조)
9. Rifle Salute and Taps, 국기퇴장
10. 한인회에서 준비한 기념 공연 시작



태극기, POW기, 뉴멕시코 주기, 성조기



애국가를 함께 부름 (김의석)



참전용사를 위한 기도를 군목이 드림(Amphitheater 전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사진으로 보는 휴전 60주년 기념행사



사회자 (신미경)



아프리카 드럼 (박선숙, Neal, Pat, Joanna)



어머니합창 지휘자(강혜숙)와 반주자(김시현)



장구/아리랑 (임은아)



하모니카 민요독주(이경화)



장구춤 (이희정)



바이올린 독주(윤담비)



어린이의 강남 스타일 춤



태권도 시범 (Dynamic Taekwondo)



피아노 독주 (김시연)



태권도 시범 (Dynamic Taekwondo)

한인회소식

사진으로 보는 휴전 60주년 기념행사



어린이 합창 : 반달 (김시연, 최혜인, 백경원, 노현지, 이준형, 노현민, 정재민) : 반주- 박수경)



무대에 오르기 전 최종 점검중인 리더(최귀분)



여성 합창단이 '도라지', '임이 오시는지' 두곡을 부름. 피아노 반주(이유신)



색소폰 독주(강혜숙)



행사를 마치고 (미리 계획한 사진 촬영이 아니어서 빠진 사람이 많음)

천기원 목사님 초청 집회를 마치고

김기천 목사

Rev. Kee_Cheon Kim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지난 6월 29일 두리하나 대표로 계시는 천기원 목사님께서 뉴멕시코를 방문하셨다. 두리 하나는 탈북자를 돕는 선교단체로 천기원 목사님께서 설립하셨다. ‘두리하나’라는 말은 남북한 나누어져서 둘이 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라는 의미로 또는 하나가 되자는 의미로 ‘둘이 하나’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두리 하나는 한국에서도 여러 매스컴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 가끔 한국

목사님은 북한이 아주 싫어하는 유명인사(?)이다. 이번 달에는 한국에서 월간조선 그러니까 2013년 7월호에서 천 목사님에 관한 기사가 소개되었다.

천 목사님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분이다. National Geographic이란 인문과학저널 2009년 2월호에 천 목사님께서 탈북자를 데리고 중국에서 탈출하는 과정이 소개되기도 했다. 콜로라도 덴버 정부에서는 아예 “두리하나의 날”을 지정해서 지키기까지 한다. 두리 하나는 미국 사회에 잘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여러 단체의 후원을 받고 있다. 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천기원 목사님



윤성렬 목사님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를 보여주면서 천 목사님을 소개 하셨습니다.

KBS 뉴스를 통해서 북한방송이 짧게 소개되기도 하는데 북한이 탈북자에 관련된 뉴스를 방송할 때에 “천기원”이란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천



THE INGLES
Company
Realtors

부동산

- Office: 505-828-1366
- Fax: 505-828-0773
- Cell: 505-249-8686
- E-mail: guiboon@msn.com

6711 Academy Rd., NE Suite B, Albuquerque, NM 87109



최귀분



ALLSTAR REALTY
OUR NAME SAYS IT ALL™

김영신 부동산

Associate Broker
7001 Prospect NE, Ste. 200
Albuquerque, NM 87110
yongfre@yahoo.com

505.321.7695 (cell)
505.888.1700 (office)
505.888.9650 (office fax)

뉴멕시코 방문도 한 후원단체의 초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산타페에 “City of Faith Christian Fellowship in Santa Fe”라는 교회가 그동안 두리하나를 통해서 북한 인권문제와 탈북자에 대한 후원을 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City of Faith 교회 목사님이신 Ryan Ellsworth목사님이 천 목사님을 초청한 것이고 천 목사님께서 그 초청에 응해서 뉴멕시코를 방문하시게 된 것이었다. 오히려 같은 한국 사람인 우리들이 발 벗고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뉴멕시코에 있는 한 미국 교회가 하고 있다는 생각에 왠지 우리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진다. 이렇게 해서 천 목사님은 지난 6월 29일 알버커키에 도착하셨고 Ryan 목사님과 그 교인들의 환영을 받으며 산타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30일 일요일 아침과 오후에 City of Faith 교회에서 탈북자 선교를 소개하셨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1일 월요일에는 알버커키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시고 7월 2일 화요일에는 산타페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과 TV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시는 바쁜 일정을 보내셨다. 뉴멕시코에서 집회를 마친 후에도 천 목사님은 미국 동부로 가셔서 동부에 있는



사회를 보신 주님의 교회의 김의석 목사

미주 두리하나 사무실을 방문하고 두리하나 이사장이신 조영진 감독님을 만나고 미국의 명문 듀크 대학에서도 강연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 목사님께서 알버커키에 오신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한인 목회자 협의회와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에서 뉴멕시코 한인들을 위한 모임을 부탁드렸다. 천 목사님께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모임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6월 30일 일요일 저녁에는 뉴멕시코 한인 목회자 협의회 주최로 하는 집회와 7월 3일 수요일 저녁에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주최로 집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두 집회 모두 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일요일 저녁 집회는 감리교회 찬양팀의 찬양과 함께 연합회 회장이신 윤성렬 목사님의 개회로 시작되었고 순서는 지역 사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맡았다. 천 목사님은 탈북자의 비참한 모습을 담은 영상을 통해서 탈북자의 인권 문제를 언급하셨다. 그 영상은 조선일보에서 제작한 것인데 전 세계에서 이미 방송으로 소개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는 아직도 방송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는 영어 회중들이 있어서 박광종 자매가 영어로 동시 통역을 해주었다. 영어 회중들은 무선 수신기로 천 목사님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 천 목사님은 강연 도중에 북한에서 탈북해서 미국에 정착한 주영 자매에게 간증을 부탁하였다. 주영 자매는 자신이 탈북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다가 도중에 감격에 벅차 말을 잇지 못했다. 듣고 있던 사람들도 같이 눈시울을 적시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집회 후에는 감리교회 여선교회에서 준비한 다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찬양팀의 찬양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천 목사님께서 알버커키에 계실 때는 최원길/최인숙 권사님 부부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안내하셨고 자신들의 집에 머물도록 하셨다. 수요일 오전에 최 권사님 부부는 산타페로 올라가서 천 목사님 일행을 모시고 알버커키로

내려왔다. 감리교회에서 열리는 수요일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수요일 집회 때에 천 목사님은 자신이 어떻게 탈북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말씀하셨다. 특히 탈북 선교를 하다가 중국 공안 경찰에게 잡혀서 7개월 동안 중국 감옥에서 생활하게 된 이야기와 그 당시 천 목사님을 심문하던 중국 검사가 나중에 천 목사님의 사위가 되는 경위를 말씀 해 주었다. 이날에는 영어 회중을 위해서 알버커키에 계시는 이준우 목사님 사위 마이클 한 전도사님께서 동시 통역을 해주셨다. 집회 후에는 감리교 여선교회에서 준비한 다과를 나누면서 천 목사님 일행들과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천 목사님은 뒤 늦게 목회자의 길을 간 분이셨다. 일찍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 소명을 거역하고 사업가의 길을 택하셨었다. 1995년 12월에 사업차 중국에 들어가셨다가 처음으로 탈북민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사업가에서 목회자로 역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강물에 얼어 죽은 채 버려진 탈북자의 시체들, 돈 몇 푼에 팔려가는 북한 여자들, 부모 없이 중국 땅에 떠돌아다니는 “꽃제비”라고 불리는 북한 아이들... 생전 처음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비참한 상황들을 목격하자 천 목사님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한다는 책임감으로 탈북자 선교를 시작하시게 된 것이다. 그리고 ‘두리하나’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 전폭적인 탈북자 지지에 나서신 계시다. 천 목사님은 두리하나 선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중국 내에서는 천사의 집을 운영하면서 부모 없이 꽃제비가 된 북한 아이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중국에서 구출 해내고 있다.



뉴멕시코 한인목회자 협의회 목사님들과 함께 기념촬영

특히 부모가 없는 이 아이들은 중국내에서 국적이 없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천 목사님은 이들을 미국이나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신다. 문제는 미국에서는 이 무국적 탈북 아이들을 받아주는 법안이 통과 되어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해당 법안이 없기 때문에 무국적 탈북 아이들이 여전히 국적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천목사님은 두리하나 국제 학교를 설립해서 한국에 탈북 자녀들 교육에 앞장 서고 계신다. 이 국제 학교는 진학률이 100 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교육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들어온 헌금은 탈북동포를 위해서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리하나 선교회에 보내졌다. 특히 이번 집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분들 외에도 스시사케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고덕효 집사님, 이치반 식을 운영하시는 신옥주 집사님과 이경화 장로님 등이 식사대접을 해주셨다. ■

Yummi House

雅緻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 (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8.95/ 삼선짬뽕 \$8.95/
해물탕면 \$8.95/ 다섯가지 냉채 \$32.95/
간pong,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8.95/
탕수우육 \$11.95 / 양장피 잡채 \$17.95

Lunch
11:00-2:3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Closed on Sundays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지역사회

싼타페 아트페어에서 한지 전시를 마치고

나의 Park Fine Art gallery는 5년 전부터 Art Santa Fe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Fair에 참여해오고 있었다.

4년전 한국의 어느 작가 소개로 Paper Artist인 이유라 교수(전주대학교 한지 산업대학원)의 작품을 신타페 아트페어에 소개하게 되었는데, 현지 사회에서 독특한 소재의 작품으로 많은 관심과 인기를 끌게 되었다. 그 당시 이유라 전주대학교 교수팀은 전주시의 지원을 받으며 한지를 유럽과 LA등 미국 전역에 알리는 프로젝트를 해오고 있었다. 우리는 수차에 걸친 토의 결과 신타페 지역에서도 한지 프로젝트를 하면 많은 현지인들에게 한국문화와 한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곳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트 신타페에서 'How Things Are Made' 라는 이벤트에 우리 종이를 소개해 보기로 했다.

그래서 Santa Fe Art Fair 기획자인 Charlotte Jackson을 만나서 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How Things Are Made'에 참여해보겠다고 했다. 샐롯은 그 당시 그다지 탐탁지 않은 듯 여겼고, 미심쩍은 마음으로 마지못해 대답을 하는 듯 보여졌다. 참여 갤러리를 잃을까봐 마지못해 대답하는 정도의 관심만...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도 주최측은 많은 의심섞인 질문들을 해왔고, 우리는 성실히 대답하며

글: 박영숙 화가
Park Fine Art Gallery



여러가지 필요한 과정을 충실하게 따랐다. 주최측도 나름대로 참고 문헌등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조사를 하는 듯 보였고, 그러면서 한지의 우수성과 다양한 용도등을 알아가면서, 차츰 관심도가 높아졌다. 그 뿐만 아니라 여러 잡지, 신문들 매체의 기자들이 전화와 이메일로 한지에 대한 질문을 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타페 지역의 여러 방송및 광고지, 잡지등에 한지에 관한 기사로 도배가 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나조차 찾아내지 못했던 한지의 우수성을 그들 스스로 리서치 해서 알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한지 체험과 다양한 작품, 종이로 된 가구, 다기 및 접시(식기) 옷, 인형, 부채 등등,.. 만드는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현지인과 주최측의 반응은 감탄을 연발 하게 되었고, 한지 체험과 한지 작품 전시를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다.

이듬해 다시 신타페 아트페어 전시참가 신청하는 기간이 되었을 때, 주최측으로 부터 전화 한통을 받게 되었다, 그것도 기획자 대표가 직접 ...

내용은 작년 한지 체험이 너무나 인기를

<13페이지에 계속>



한지 체험 현장



아트페어내 Park Fine Art 부스

박인배 목사님을 회고하며

글; 이경화 장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알버커키한인침례교회에서 1987년 부터 5년간 담임하셨고 1994년에는 남침례교 선교사 파송을 받아 일본으로 가셔서 선교활동을 해 오셨던 박인배 목사님께서 암으로 투병해 오시다가 지난 6월28일 서울에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은 침례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했던 성도님 뿐만 아니라 알버커키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교민들에게도 충격적인 슬픈 소식이였다. 박 목사님께서 알버커키에서 목회하시는 동안 담임하셨던 한인침례교회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 하신 목사님으로 존경받는 목사님이였다. 박 목사님이 계신 동안 알버커키에는 한인교회로서 침례교회와 연합감리교회 두 교회가 있었는데 두 교회의 연합 사업이 30여년의 교회역사를 놓고 볼 때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성탄 축하 음악 예배는 매년 교회를 바꾸어 가면서 연합으로 드렸고 여름에는 합동 야외예배, 친선 체육대회도 매년 있었다. 두 교회는 한국에 있는 아가페 여성합창단을 한인회와 공동으로 초청해서 음악회를 열었고 합창 단원들의 민박을 제공하는 봉사도 두 교회가 함께 해결한 일들을 보면서 이런 화목한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



선교사로 일본에 계실때의 박인배 목사님과 김은애 사모님 (Mrs. Grace Park)

낸 것이 다름아닌 박 목사님의 리더쉽으로 인한 것 이었음을 알게 된다. 캘리포니아로 떠나실 때는 감리교회에서도 아쉬운 마음으로 박 목사님을 모시고 송별예배를 드렸다는것은 얼마나 두 교회가 한 교회, 한 가족 처럼 가까웠던가를 입증하는 작은 예가 된다.

김두남 전 회장님께서 수집해 보내 주신 박 목사님께서 일본 동경에서 선교사로 일하신 자료를 보면 박인배 목사님은 노숙자들이 잠을



1989년 연합 음악예배때의 박인배 목사님



예배후 친교시간. 김학수목사님과 박인배 목사님.

자는 공원과 기차역을 찾아 다니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목사님은 전도지와 먹을 거리와 성경과 등에 메는 가방이 없이는 집을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노숙자를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뜨거운 커피가 들어 있는

일하였다.

김은애 사모님께서서는 알버커키에 계신 옛 교수 여러분께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 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한다는 메일을 보내 오셨었다. 사모님께서서는 자녀 분들이



요요기 공원 노천 채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박인배 선교사님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오크랜드로 가서서 1년 동안 애도의 기간을 보내시고 그후에는 다시 일본으로 가서서 박목사님께서 하셨던 일본인의 영혼구원의 사역을 계속하실 뜻을 밝힌바 있다.

그리스도를 닮은 박인배 목사님께서 알버커키의 한인교회와 이 지역사회에 보여 주셨던 사랑을 우리도 본 받아 오늘의 이곳 교포 사회가 더 화목한 한인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

보온병과 주먹밥을 꺼내고 그의 등에 메는 가방이 방석이 되어서 그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사역을 헤아릴수 없이 계속 반복하신 것이다.

목사님은 2000년에서 2004년까지는 중국의 북한 접경지역에 가서서 지하교회 지도자 훈련을 위한 선교활동도 하였고 곧 이어 일본 동경으로 다시 가서서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노숙자 선교사로



1989년 침례교회, 감리교회 연합 성가대 찬양. 지휘:강재원

박인배 목사님의 약력

출생 1952년 2월21일

학력 배재 중고등학교 졸업

Liberty University 졸업

Western Seminary 졸업

Golden Gate Seminary 목회학 박사

결혼 1980년 영암교회에서 결혼 (주례:임옥목사)

목회경력 1977-1980 Liberty 선교 합창단 통역

1978년-1982 Roanoke 침례교회 개척 (Virginia)

1982년-1983년 Dallas 한인성서교회 청소년 담임(Texas)

1987년-1992년 Albuquerque 한인침례교회 담임(New Mexico)

1992년-1993년 Roanoke Park 한인침례교회 담임(California)

선교활동 1994년-2000년 미국 남침례교 선교사로 일본 파송

일본 고베와 동경에서 교회 개척선교
2000년-2003년 북한과 중국의 압록강, 두만강 접경도시에서 북한 지하교회를 세우기위한 지도자들을 훈련

2004년-2012년 동경지역 노숙자 사역

유가족 부인: 김은애

장남: 박인성

차남: 박은성

장녀: 박세라

하나님을 찬양함, 그 특권의 한복판에 내가!

“빠빠가 내 손 물었어!” 피가 떨어지는 손가락을 붙잡고 집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내 얼굴에는 미묘한 기쁨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피아노에 입문한지 어언 4년. 파바로티도 울고 갈 미성의 테너 목소리를 지닌 아버지와 음악을 전공한 어머니 사이에서 딸 셋 중 맏이로 태어난 나는 부모님의 소망에 따라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아버지의 소원은 소박하게도 딸의 반주에 맞추어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것이었고, 어머니의 소원은 조금은 거창하게, 외할아버지의 반대로 결국 포기했던 음악가의 길을 딸이 대신하여 걸어 주는 것이었다. 실제로 우리 식구들은 모두 음악을 좋아했다. 온 가족이 모이기만 하면 항상 노래를 하였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이 찬송가를, 조금 커서는 복음성가와 찬송가를 화성에 맞추어 목청 높여 부르곤 했다. 그런데, 정작 나는 피아노를 치는 것이 도살장에 끌려 가는 것처럼 싫었다. 피아노 치다가 조는 일은 보통이고, 선생님이 외워 오라고 숙제를 주시면, 그날 즉석에서 외우는 순발력을 발휘하여 하루하루 위기를 모면 하곤 하였다. ‘피아노는 처서 무엇에 쓴다고!’ 어린 나의 소견에 피아노는 인생에 도무지 필요 없는 물건이라 생각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소중한 애견 빠빠가 병으로 아파하고 있을 때 억지로 약을 먹이려다 손을 물린 것이다. 순간, 손가락의 아픔보다는 내일 피아노를 치러 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기쁨이 더 컸던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결국, 내 고집에 부모님들도 손을 드시고, 난 꿈에 그리던 해방을 맞이 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번엔 좀 더 지루한 반주의 세계로 발을 들여 놓게 되었다. 내가 중학교 1학년 되던 해,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고 하 용조 전도사님(전 서울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연예인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버지를 통하여 반주를 부탁하셔서 1년간 예배 반주를 하게 되었고 다음 해에는 본 교회에서도 예배 반주를 하게 되었다. 아버지를 무지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배려였나 보다. 어느 날, 아버지는 내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교회에서 찬양을 하셨다. 대학을 아동학과로 진학하고도, 피아노는 손에서 떼어 놓을 수가 없었다. 또래 친구들이 어울려 찻집으로 놀러 다닐 때에도, 난 교회에 남아 권사님, 집사님들 틈에서 떨리는 바이브레이션 소리를 친구 삼아, 성가대 반주를 해야만 했다. 예고, 이 웬 기구한 운명이란 말인가!

양수미 집사

성가대원
교회 부반주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재주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 채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결혼을 하면서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반주자의 직분을 벗어 던졌다. 그것이 얼마나 철 없는 행동인지 알지 못한 채!

하지만, 처음으로 알게 된 해방감과 만족감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 채 후회로 바뀌기 시작했다. ‘피아노를 치고 싶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반주가 하고 싶었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그러나, 소위 대형 교회에서 전공하지 않은 나에게 피아노를 치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얄짤 없이 대들고 격으로 운동을 하다 손가락을 다쳐 전처럼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자 나는 뒤늦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과 부모님의 사랑과 배려를 모르고 불평만 했던 것 용서해주세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동네의 community college에 organ class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마침 난 어려서부터 organ 소리가 좋아 연주회를 찾아 다녔던 터라, 아이들이 학교를 간 오전시간을 이용하여 올간을 배우기 시작했다. ‘거참, 생긴 것은 비슷하구먼...’ organ은 피아노와는 technique이 너무나 달랐다. 나의 첫 올간 선생님이신 Dr. Barr는 매우 엄격하여, 늘 꾸지람을 듣기 일쑤였고, 다리는 또 왜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지. 컴컴한 organ 연습실에서 매일 연습을 시작하기 전, organ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 “하나님, 아무도 내게 피아노를 치라는 사람이 없어요. 하물며, 올간이겠어요? 지금 연습을 합니다. 훗날 땀땀이라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게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셨는지, 몇 년이 지나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 났다. 섬기던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피아노 반주자가 모자라 임시로 반주를 맡았는데, 결국 정식으로 당회로부터 임명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집사님의 donation으로 교회에 organ까지 들어 오게 되었다. 현대 음악의 보급으로 교회들은 점점 올간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전공한 organist들도 차츰 줄어 들어 당시 organist 구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그 덕분에 난 그 큰 교회에서 책임 organist가 되었다. 땀뽕이 아닌 정식 organist가 되었던 것이다. 그 날 organ key를 받아 들고 집으로 오던 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던지. 하나님의 배려와 세밀하신 계획에 대한 감사와 그 동안의 철없음에 대한 사과, 그리고 다시는 태만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또 다짐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 곁에서 함께 기뻐하고 계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먼저 손 떼지 않겠노라 하나님께 약속 드렸다. 때때로 바쁘고, 집이 멀어 힘들어 그만 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께 드렸던 올간 연습실에서의 그 기도를 기억하곤 했다. 작은 곳의 땀뽕이라도 감사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흠 없는 제사장만 섰던 그 자리에, 내가 찬양을 통한 예배 중보자로 서 있었던 것이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예배를 돕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떨리고,

감격스러운가! 잘못하면 죽어서 나왔던 그 제사장 직분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은 나로 하여금 매일의 삶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 보게 했다. 매 예배에 흠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물론 부족하지만, 너그러우신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봐주시길 기대하며, 성도들이 목소리로 찬양을 할 때, 나도 지지 않으려 몸으로 찬양했다. 매 순간 기쁨과 감사를 담아.

LA를 떠나 이 곳 알버커키를 향하기 위하여 교회에 사직을 고하던 날 참으로 마음이 착잡했었다. ‘어쩌면, 내 평생에 다시는 organ을 연주할 기회가 오지 않을 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크고 놀라우시니까...’ 이렇게 아쉽고 서운한 마음을 스스로 달래며, 그 동안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성도들과 성가대를 뒤로 하고는 LA를 떠나왔다. 이 곳에 정착한 지 6년. 알버커키 연합 감리교회에서 나는 또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얻었고 그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유신 집사님이 자리를 비우실 때마다 나는 땀뽕 반주자의 직분을 다하고자 기도로 준비한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함에 동참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2013년 어느 여름 날에 ■

<9페이지에서 계속>

싼타페 아트페어에서 한지 전시

끝났을 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부터 올해도 한국의 종이 작가들이 참여하느냐고 하는 문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노라면서 한번 더 와줄 수 없느냐고 ,, 정중하게 초청을 해 왔고 우리는 다시한번 참여하기로 했다

물론 모든 행사 준비는 작년과 달리 주최측에서 열심히 준비를 해 주었고 다시 한 번 여러 신문과 잡지, 광고등이 “Korean Traditional Paper”로 장식 되었었고

다시 많은 관심과 인기를 끌게 되었다.

컬렉터(수집가) 중에는 영화 배우 폴 뉴먼의 동생도 있었었다.

올해도 또다시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도 꼭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우리 작가들이 미국에 도착할 즈음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의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 보도를 듣고는 너무나 걱정이 되었다며, 직접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우리 한지 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한 컬렉터는 다리를 다쳐서 기브스를 했는데, 이번에도 한국서 한지팀이 올해도 오느냐고

물어왔기에 기획자가 다리를 다치셨는 데 어떻게 오시겠느냐고 물었더니 휠체어를 타고라도 올거라고 했다면서 우리의 인기를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

또 다시 폴 뉴먼의 동생도 올해도 다시 찾아와 한지 작품을 구매하였으며, 내년에도 새로운 작품을 기대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알버커키와 신타페 클래식 라디오 KHFM에서도 생방송으로 한지를 알리고 참여해온 배경에 대하여 인터뷰도 하기에 이르렀다, 짧은 영어라 망설였지만, 한국과 한지를 알려야 한다는 맘에 생방송 인터뷰도 하게 되었다.

3년간 지속적으로 한지를 알리고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체험하고 알게 된 몇몇의 현지인들은 우리에게 말하길 한지store나 대리점이 신타페에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네가 그 역할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어오기도 했다,

신타페 시장인 David Coss도 우리 부스에 찾아와 함께 사진도 찍으며 많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이유라 교수는 작은 작품 "한지스토리"를 그 분에게 증정했다. 알버커키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도 이번 신타페 아트페어에 많이 찾아와서 후원해 주신 성의에 또한 감사를 표하고 싶다.■

2주간의 휴가



이동미 집사

예배부위원

프레스비테리언 병원

자원봉사 RN

지금은 모든것이 꿈인것만 같다. 먼저 2주간의 휴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중간에, 휴식이 필요했던 나에게 쉼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일은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시작되었다. 평소부터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나의 어머니, 평생 일 밖에 모르시고 살아 오셨던 엄마가 2년전부터는 걷지도 못하시고, 앉아서 방걸레질 하시기도 힘들어지시면서 큰언니가 시골에 계시던 부모님을 서울로 올라 오시게 했다. 큰언니 집 가까운 곳에 방 2칸짜리 전세집을 하나 얻고 그곳에서 두분이 생활하시게 되었는데, 매일 큰언니는 반찬을 만들고 청소하느라 부모님댁을 들락거리게 되었다. 나는 멀리 사니까 그런 수고는 없이 그냥 전화 드리는 것 만으로 막내딸의 역할은 충분한 것 같았다.

어느날 엄마가 갑자기 앰블란스에 실려서 서울 보라매병원으로 가셨고, 그 뒤로 엄마는 집으로 못돌아 오고 계신다. 작은 언니 말로는 병원 가시며 며칠전부터 화장실 출입도 못 하시게 되었고, 기저귀를 차고 누워 지내시다가, 열이 나시면서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열은 내렸지만, 입으로 음식을 못 넘기시고 몸을 꼼짝 못하시게 되면서 요양병원으로 옮기셨다.

좀 지나면 괜찮아 지시겠지 싶어서 별 걱정을 안했는데, 큰언니가 "너 그래도 엄마가 의식이 있을 때 만나러 오는게 좋지 않겠냐?" 하는 말을 했다. 큰언니에게 물었다. 아니 엄마가 그렇게 나빠지셨느냐고. 그 후로 심각한 정도는 아닌채로 열도 내리시고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지만, 내내 지금 가서 엄마를 뵙는게 낯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맴돌았다. 아이들 학교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남편과 상의 했더니 자기가 1주일 휴가를 낼테니까 다녀오라고 했다.

그러나 마음에 걸리는게 있었다. 작년에 이곳에 있는 간호학과 교수님을 도와서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혼자서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 와야 한다는 사실이 내게는 어렵게만 느껴졌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중에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되지 뭐' 하고 한국을 안 가려고 했다. 그러다가 교회 자매들과 함께하는 share모임에서 기도부탁을 했다. 한국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리고 그날 저녁인가, 이민전문 변호사 사이트를 뒤지다가 이런 글을 읽게 되었다. 'H비자 배

우자는, 단 개개인이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한 일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었다. 아하 이거 내꺼구나 싶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영락교회를 다닐때 알던 자매의 남편이 미국 국제 변호사라서, 몇번 전화로 이메일로 나의 형편을 얘기하고 조언을 구했는데, 직접 통화는 못했지만 전화메세지로 긍정적인 답변을 들으면서, 아! 할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이 주셨다. 금요일 모일때마다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하였다. 참으로 하나님은 나 개인의 일이지만 여럿이 함께 기도할때 정확하고 순직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매 주마다 느낄 수 있었다. 미국대사관 인터뷰 날짜 예약과 비행기 티켓사는 것까지 다 끝냈을 때의 기쁨은 컸다. 아! 이제야 한국으로 가게 되는구나. 다른 분들에게는 너무 쉬운 일인지 모르지만 내게는 그것도 산이었다. 잘 알고 지내는 분이 말씀하셨다.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께 휴가 주시나 봐요" 했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것 같다 싶었다.

엄마는 "미야, 왜 이제 왔노" 하셨다. 나를 무척 기다리셨다고 했다.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 엄마는 애기처럼 모든것에 도움이 필요하셨다. 본인의 몸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실 수가 없었다. 엄마는 화를 내고 계셨다. 그리고 집으로 가고 싶어 하셨다. 면회시간을 끝내고 내가 집으로 갈려고 할 때면, 엄마는 "나도 가자, 내 신발 신겨라" 며 따라 나설려고 하셨다. 그런 엄마에게 나는 "엄마, 나 엄마 못 데리고 가요. 집으로 가면 누가 모실건데? 아무도 없어요. 누가 24시간 엄마 옆에 붙어서 기저귀 갈아주고 닦아주고 그래. 엄마가 혼자서 화장실만 갈 수 있으면 그때 집으로 가자" 말 했다. 엄마는 내가 집으로 갈려고 할 때마다 나를 붙잡으셨다. 등 좀 굽어라, 자고 가라, 뭐 벌써 가나 하면서 매번 나를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 엄마에게 가서는 맨 먼저 엄마의 두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엄마가 여기에 계시는 동안 마음이 평안하게 지내시게 해 주세요" 하고. 그리고 엄마더러 "엄마, 아멘" 하면 엄마도 따라서 아멘 하셨다.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갔다. 여러가지 준비하느라 마

음이 바빠졌다. 그 날도 엄마손을 붙잡고 기도하고서 얼른 내 손을 빼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엄마가 내 두손을 꼭 붙들어서는 엄마쪽으로 가져가시는 거였다. 처음에는 엄마가 내 손에다가 뽀뽀를 하 시려는 줄 알았다. 엄마는 “아멘” 하시면서 내 손 을 놓아 주셨다. 그리고 내게 “잘가라”고 나를 보 내 주셨다. 그 전날, 병원에 입원하시고 4개월만 에 처음으로 엄마를 간병인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 아 휠체어에 모시고 바깥나들이를 했다. 요양병원 바로 옆에 작은 공원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엄마를 모셨다. 엄마는 참 좋아 하셨다. “엄마, 좋아?” 내가 물으니깐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서 내가 “엄마, 좋으면 좋다고 말해봐” 했더니 “좋 다” 하시면서 한 10분~20분 앉아 계셨다. 그리고 는 춥다 하시면서 들어 가자고 했다. 그렇게 엄마 는 나를 다시 이곳으로 보내 주셨다. 가서 두번째 주일은 시부모님과 함께 영락교회에 갔다. 본당에 들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냥 좋 았다. 예배가 끝나고 시부모님은 먼저 집으로 가 시고, 나는 교회에 남아서 만날분을 기다렸다. 그 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옛날 우리 아이들 주일학 교 선생님을 우연히 만났다. 그 분은 이제 권사님 이 되셨는데, 우리 가정이 미국으로 떠나오기 전 주일에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계셨다. 미국으 로 떠나올때 남편이 했던 말이 있다.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의료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했다. 남편 은 한국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면서 소아병원

을 지날때마다 아파하는 아이들을 보면 안쓰러웠 다고 했다. 내가 남편의 그 말을 떠나오는 자리에서 했는데, 그때의 내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니었다. 웬 그런 말을 남편이 했을까 싶었고, 3년후면 다 시 돌아 올꺼라고 생각했다.

이제 6년을 채워가고 있다. 그리고 남편이 그때 했던 그 말이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자 vision으로 자리잡고 있다. 여기와서 미국 RN 자격증도 주신 하나님, volunteer로써 미국병원에 서 일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그 날에 대한 소망을 가져본 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살고 싶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운데 살고 싶다. 비록 부족한 모습뿐이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나머지 시간들 을 채워가고 싶다. 2013년 7월 2일 ■



이동미 집사 님 가족을 소개해드립니다. 뒷줄에 남편 되시는 최성 원집사(UNM 약학대학 연구원), 그옆이 막내 딸 혜민, 앞줄 에 와서 장녀 혜선, 이동미 집사님,혜인, 혜린.

기도문

새벽예배 기도문

항상 성령 충만히 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위에 서서 살아 갈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 하옵나이다.

화평속 주관 이 새벽예배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또 한번 감사 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많은 죄를 고백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고 차디찬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열기로 가득차기를 이 새벽에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늘 죄가운데 살아 가며 죄로 물든 저희들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모든 욕심과 교만과 게으름의 죄악을 깨뜨리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아버지의 날 입니다. 가정의

전용배 집사

화평속 속회 인도자
Kitch Cleaners 경영



권위가 날로 무너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의 가정만은 아버지의 권위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수고와 고생으로 희생으로 자녀들을 키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 남은 평생을 보살펴 드릴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의 통치도 주님의 권세 안에서 속히 이루어 지기를 간구 합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부정과 불의와 온갖 죄악된 일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사오니 이 사회를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건전하고 바른 가치관이

정립 될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의 통치도 주님의 권세 안에서 속히 이루어 지기를 간구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부정과 불의와 온갖 죄악된 일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어오니 이 사회를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건전하고 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명하신 대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만물을 생성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뉴멕시코에 풍족한 비를 내려 주시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잘 보존하며 살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삼년간에 걸친 극심한 가뭄과 특히 지난 여덟 달 동안에 일 인치에도 못 미친 비로 알버커키의 강과 산들은 계속 불 타고 있으며 작은 야생 동물들은 먹을 음식과 물을 찾아 허기진 배를 채우려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내려

오고 물가의 작은 물고기 초차도 살기가 힘들게 되었으며 우리의 마실 물, 농사 지을 물 조차도 부족해지고 자연은 점점 황폐해 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건데 풍족한 비를 내려 주시어서 이 뜨거운 대지를 식혀주시고 자연과 인간 모두가 평온하게 살아 갈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는 현용규 목사님을 권세있게 하셔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우리들이 성령의 역사 하심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신 후 나홀째 날에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문순 시즌이 시작 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뉴멕시코 성결교회 (Albuquerque)

전종철 목사

주일예배 § 시간: 오후 1:00 pm

새벽기도 § 시간: 5:30 am (매일)

§ 주소: 2801 Lomas Blvd NE, Albuquerque, NM87106
(505) 238-3551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이준우 목사(505-269-0691)

주일예배 § 시간: 10:30 am

§ 주소: 780 Camino Del Rex, Las Cruces, NM88011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

주일예배 1부 § 시간: 11:30 am

§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 시간: 2:00 pm

§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매달 넷째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 시간: 11:30 am

§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주일예배 (Worship) § 11: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 11:00 am (Sunday)

수요예배 § 매주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 5:30 am (Tue-Fri) § 6:00 am (Sat.)

§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 전화 505-803-7716

웹사이트: www.kumcabq.com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렬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 5:45 am (Tue-Fri)

수요 예배 § 매주 수요일 7:00 pm

§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회장(505-652-4627)

§ 월모임: 매월 세 번째주 일요일 오후 6:00 pm

§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 소공동체, 성령기도회, 성서입문: 매주 월, 수, 금

§ <http://cafe.daum.net/abq-catholic>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익석 목사

주일예배 §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 6:00 am (월~토)

성경공부 §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UNM 캠퍼스 선교: 매주 화요일

*Homeless Mission :매주 토 7:30am

@ Coronado Park (2nd street)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 주소: 12120 Copper Ave., NE, Albuquerque, NM 87123 (505) 903-2297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주일예배 §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알림: 위에 소개된 개신교 교회는 뉴멕시코 교역자 협의회 회원교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설교요약

힘써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 6:1-6)

<아래의 기고문은 알버커키에 이주해 오신 이준우 선교 목사님께서 지난 6월 한달에 걸쳐 라스크루세스 한인 침례교회에서 설교하신 내용을 요약하신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40여년 장로교회(예장 통합측)에서 목회하셨고 미얀마 선교사 목회자 훈련 사역을 매년 1월-3월에 하고 계십니다.>(편집자 주)

이준우 목사

Rev. Jun Woo Lee
라스크루세스침례교회



기독교의 하나님은 곧 성경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인생들이 (성도들) 하나님을 아는 길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기를 원하신다 (본문).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없는 믿음때문에 망한다고 탄식하신다. (호 4:6, 롬 10:2-3)

1. 영이신 하나님의 이름

- 1) 야웨 (여호와) : 스스로 계신자 (출 3:14-15)
- 2) 엘로힘 :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창 1:1)
- 3) 아도나이 : 절대 주권자 (시 103:19, 롬 11:36)

2. 새 일하시는 하나님 (요 5:1-18, 사 43:14-21)

- 1) 처음 일 :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심 (창 1장-2장)
- 2) 새 일 :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
 - (1) 이유: 아담의 범죄 - 사단의 미혹 (창 3:1-14)
 - (2) 선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을 통한 사단의 심판 (창 3:15)

(3) 내용: 언약(복음) - 역사 속에서 진행 (이스라엘 민족사) -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 교회역사 (복음확장)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 나라 완성)

3. 언약의 하나님 -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확증 (출 3:8)

- 1) 내려오신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신론 / 기독교론)
 - (1)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시고 구원을 언약하심 (창 3:9-15)
가죽옷을 입히심-짐승의 피흘림 (창 3:21):대속의 예표
출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선민을 구원하려고
내려오신 하나님 (출애굽기)
 - (2)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 - 예수 그리스도 (요 1:14)
십자가의 피흘림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 (골 2:15)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 되실
예수님 (계 11:15)
- (3) 믿고 구하는 이들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 성령 (요 14장-16장)
중생-성화-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심(딤후 3:1-7)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 (롬 8:28)

■ 인간 스스로의 노력(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겸손하게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

2) 건져내시는 하나님 (구원론 / 기독교론)

- (1) 애굽은 곧 세상이며 (계 11:8) 큰 성 바벨론이다 (계 17장-18장)
애굽은 우상의 나라이며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이다.
출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선민은 사실상 죽은 자들이다 (엡 2:1)
- (2)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10재앙 (출 7장-12장)
어린양의 피흘림을 통해서 선민을 구원하심 (출 12장)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심 (출 14장)
- (3)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 (골 1:13-14)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 (딤후 4:18)
재림하셔서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님 (살전

1:10)

- 성도들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요 17장).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치신대로 기도생활하면서 (주기도문) 주께서 늘 건져주시는 은혜를 받고 감사와 찬송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
- 3)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론 / 교회론) : “불기둥과 구름기둥” (출 40:36-38)
 - (1)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전체를 말한다. 광야 40년 (광야교회 (행 7:38)) 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과정이다.
 - (2)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실패 (고전 10:1-13, 히 3:15-19): “불신앙”
 - ① 우상숭배 ② 음행 (영/육) ③ 하나님 시험 ④ 원망
 - (3)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 순종하는 믿음 요구 (히 11장)
 - ① 성도들의 영원한 목자되신 하나님 (시 23편)
 - ②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시는 예수님 (벧전 3:18)
 - ③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요 16:13)
- 기독교의 신앙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이며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종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므로써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순종의 삶이다 (히 11장).
- 4) 다 이루시는 하나님 (천국론 / 종말론)
 - (1) 출애굽의 하나님
 - ① “너는 정녕히 알라”고 아브라함에게 언약 (창 15:12-21)
 - ② 그 언약을 기억하심 (출 2:23-25)
 - ③ 그 언약을 다 이루심 (수 21:43-45)
 - (2) 메시아 언약
 - ① 원시복음 (창 3:15) - 여자의 후손 (갈 4:4)
 - ② 아브라함과 언약 (창 12:1-3) - 예수 초림 (마 1:1) : “다 이루었다” (요 19:30)
 - ③ 예수님 재림 (계 19장-22장) : 하나님 나라 - “이루었도다” (계 21:6)
 - (3) 처음과 나중되신 하나님 (사 41:4, 44:6, 계 1:8, 17, 21:6)
 - ① 창세기에서 시작 (창 1:1) - 요한 계시록에서 끝 (계 21:1-7)
 - ② 창세기에서 언약 (창 3:15) - 요한 계시록에서 완성 (계 10:7)
 - ③ 성경전체: 역사 속에서 진행 - 요한 계시록에서 성취
- 역사는 새 일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고 복음은 그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며 믿음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므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영원한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 기독교의 하나님, 곧 성경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을 상속받는 성도들이 되자.■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최귀분 Gui B. Bonaguidi The Ingles Company Real- tors (505-249-8686)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치과 Dental Clinic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세탁소 Dry Cleaners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A-1 Oriental 1410 Wyoming NE ABQ (505-275- 9021)	건축/페인트 Painting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Ar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Asia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503-7685)	공인회계사 CPA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종교 Church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태권도 TaeKwonD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리커스토어 Liquors	의류 Clothes	뉴멕시코 성결교회 2801 Lomas Blvd. NE, ABQ, NM 87106 (505-238-3551)	Dynamic taekwondo acad- 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Kelly Liquors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BQ ,NM (505-999- 8222)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샌디아 장로교회 10704 Paseo Del Norte NE ABQ (505-823-1678)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9400)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한 의사 Acupuncture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 899-0095)	부동산 Realtors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Dr. Chang: (장상순) 301 San Pedro Suit# B, SE, ABQ (505-710-7504)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김영신 Yong Shin Kim: Jade Southwest Realtors (505-321-7695)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839-8697)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Dr.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 #B 87113 (505- 514-2900)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수잔리 Susan Lee Coldwell Banker (505-934-8949)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주택용자 Loan Officer	화랑 Gallery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 296-8568)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BBVA (Office 505-206-9963)	Park Fine Art Gallery (박영숙): 20 First Galleria Plaza NW, Suite #27 (505-764-1900)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Hair & Co(황경희) 5901 Wyoming Blvd., NE (505-797-8087)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회원/원예 Nursery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Sizzler 7212 Menaul blvd. ABQ (505-833-5755)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p>사진관 Photo</p> <p>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p>	<p>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p> <p>건강식품 Health Food</p> <p>인성내츨: Los Alamos (505-662-9681)</p>	<p>카페/ 선물 Cafe/Gift</p> <p>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 527-0098)</p>	<p>화밍톤 Farmington</p> <p>종교 Church</p> <p>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 rington, Farmington (505- 453-5461)</p>	
<p>중재서비스</p> <p>ADR-Mediai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p>	<p>종교 Church</p> <p>산타페 한인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 -5420)</p>	<p>병원 Clinic</p> <p>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 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p>	<p>가게 Store</p> <p>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 ington, 87402 (505-327- 7167)</p>	
<p>단요가 Dahn Yoga</p> <p>알버커키505-797-2211 커튼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p>	<p>산타페 Santa Fe</p> <p>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p> <p>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p>	<p>Sonoma Dental Implants Cosmetics 575-589-1599, 575-932- 8217 1074 country club rd, #3A Santa Teresa, NM 88008</p>		
<p>리오란초 Rio Rancho</p> <p>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p> <p>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p>	<p>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p> <p>Osaka (Traditional Japa- 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p>	<p>치 과 Dentist</p> <p>소노마 치아이식 및 치아성형 원장 : 정명희,DDS 1074 Country club rd. #A3 Santa Teresa, NM 88008 (575-932-8217) (575-589-1599)</p>	<p>종 교 Church</p> <p>라스쿠르세스 침례교회: 525 N. Madrid Suite #2, Las Cruces NM 88001 (915-276-2773)</p>	
<p>리커스토어 Liquors</p> <p>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 8855)</p>	<p>종교 Church</p> <p>New Beginning Church 480A County Rd. 84 Santa Fe, NM 87506 (505-577-4572) (cell 505-577-4572)</p>	<p>라스쿠르시스 한인교회 1132 Solano, Las Cruces, NM 88001 (575-644-6545)</p>		
<p>클로비스 Clovis</p> <p>종교 Church</p> <p>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Gospel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p>	<p>라스베가스 Las Vegas</p> <p>치 과 Dentist</p> <p>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p>			
	<p>라스크루세스 Las Cruces</p> <p>공인회계사 ACC</p> <p>Kelly Tax and Account- 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p>			<p>광야의 소리 2013년 7/8월호 발행: 2013.8.1.</p> <p>발행인 : 김기천 (Kee-Cheon Kim) 편집인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p> <p>발행처: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voiceofnm@gmail.com (505)341-0205</p>

HUONG THAO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 Beer & Wine

Tues - Sat 11:00am - 9:30pm • Sun 11:00am - 8:30pm

1016 B. Juan Tabo NE
Albuq., NM 87112 • (505) 292-8222



Choices: pork, shrimp, chicken, beef, \$11.25 or any combo for \$11.95
Extra large add \$3.95 Extra noodles \$2.25 Extra Meat 2.95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Lunch
11:00-2:00 Mon -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12:30-8:00 Sunday

www.abqsushiandsake.com



Everything You
Need for
Oriental Food

A-1
한국식품점

(505)-275-9021
1410 Wyoming NE
Albuquerque NM 98112

Mon-Sat
10:00-6:00
Sunday
close

Korean United Method Church In Albuquerque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505) 341-0205 www.kumcabq.com

Attach Stamp
우표를 붙인 후
반을 접어서 발송

To: